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WITCHBORN

가제 : 마녀의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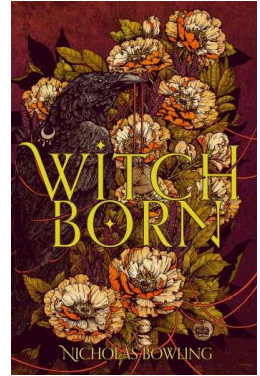
저자 : Nicholas Bowling

출판사: Chicken House Ltd

발행일: 2017년 9월 7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스페인 판권 계약 체결

* 스스로의 힘을 알지 못하는 마녀의 딸, 역사와 마녀, 마술이 결합된 흥미진진한 모험과 반전

1577년, 가을이 깊어가던 11월의 어느 날 엘렌의 작은 오두막에 한 무리의 성난 사람들이 몰려왔다. 마을 관리, 성경을 든 교회 목사, 마을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들은 대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주먹으로 문을 거세게 두드렸다. 불 앞에 서서 스프를 끓이던 엘렌은 깜짝 놀라 방 안을 둘러보고, 짙으로 만든 사람 모양의 형상과 뼈, 말린 허브, 돌을 얼른 숨기고 문을 연다. 침대 두 개가 방 한 구석에 자리한 작은 집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다. 조용히 인사를 건네는 엘렌에게, 선두에 서 있던 잘생긴 관리가 성경을 펼쳐 들고 뜻밖의 소식을 전했다. “엘렌 그린리프, 말레우스 당국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악마와 거래하여 마법을 부린 죄로 당신을 고발한다.”

자신은 그저 평범한 주부일 뿐이라고 엘렌은 서둘러 변명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뒤에 있던 주민들은 교회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짜 놓은 우유를 다 쉬게 만든 적도 있다고 소리를 질러댔다. 관리가 억울하면 관청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 되지 않겠냐며 엘렌을 데려가려 하고, 엘렌은 갓 끓여놓은 마법 스프를 식사로 대접하지만 사람들은 넘어가지 않는다. 결국 끌려가기 직전, 누군가 엘렌의 딸을 찾기 시작한다. 다들 잊고 있던 존재, 마녀의 딸도 같이 찾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사람들은 집 안을 뒤지고, 깜짝 놀라 이들을 저지하려던 엘렌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들 중 한 사람에게 마법을 걸고 만다. 허가 순식간에 굳어져 입에서 뱉혀 바닥에 툭 떨어지게 만든 것이다. 소스라치게 놀란 무리는 기겁하며 엘렌을 포박하고, 그렇게 엘렌은 딸과 이별했다. 그리고 얼마 후, 마을 전체가 쳐다보는 광장 한복판에서 화형을 당하고 말았다.

엘렌의 딸, 엘리스는 엄마가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 광경을 본 것만으로도 견디기 힘든 상황

에 마녀의 딸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사냥꾼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다. 사람들이 유독 마녀에 기겁하는 이유는 나라가 둘로 쪼개진 불안한 시국 때문이기도 했다. 두 명의 여왕, 두 개로 갈라진 종교, 나라의 미래도 전혀 다른 두 개의 비전으로 나뉘는 상황에서 양쪽의 대립은 나날이 극심해져만 갔고, 마녀는 불안을 증폭시키고 단결해야 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흐리는 존재로 여겨진 것이다. 하는 수 없이 마을을 떠나야 하는 앨리스는 런던으로 달아나는 데 성공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다. 어떻게든 앨리스를 찾아내려는 추적자들이 따라붙는 가운데 자신은 엄마처럼 마법 같은 건 부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앨리스에게 충격적인 변화가 생긴다. 흑마술을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 격렬히 대치 중인 두 여왕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앨리스를 먼저 쟁취하려고 혈안이 되어 찾아 다니는데, 그 뒤에는 앨리스도 모르는 수상한 이유가 숨어 있었다. 겉으로 드러난 정치적 싸움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무서운 전쟁, 초자연적 존재들간의 비밀 전쟁이 시작되고, 선과 악의 경계가 흐릿해져 누구도 헐사리 믿을 수 없는 갈등이 수면 아래에서 고개를 들고 있었다. 왜 다들 자신을 소유하려고 하는지, 의아한 앨리스는 두 여왕의 전쟁에 끼어버린 상황에 처하고, 영국의 운명이 자신의 작은 두 어깨 위에 놓여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다.

신예 YA 작가가 처음으로 완성한 이 소설은 어두운 음모와 반전, 스릴이 고루 섞인 판타지에 역사적 사실을 가미하여 더욱 흥미롭다. 우정과 인내, 죽음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극명히 대립되는 두 세계의 갈등과 신비한 마법이라는 소재로 풀어낸 재미 있는 이야기다.

<저자 소개>

니콜라스 보울링(Nicholas Bowling)은 런던에서 라틴어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스탠드업 코미디언, 음악가, 작가로도 활동 중이다.

제목 : WAKING ROMEO

가제 : 로미오를 깨워라

저자 : Kathryn Barker

출판사: Allen & Unwin(호주/뉴질랜드)

발행일: 2017년 6월 1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2016년 호주 아우리얼리스 YA 소설상을 수상한 촉망 받는 작가의 시간여행 로맨스 신작**

*** ‘닥터 후’, ‘로미오와 줄리엣’, ‘폭풍의 언덕’이 결합된 참신한 SF 소설**

5년째 시간여행자로 활동하고 있는 엘리스에게 이상한 지시가 떨어졌다. 2146년으로 가서 로미오를 깨우라는 내용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슈퍼컴퓨터로 그 메시지가 전달됐을 때 출발 예상 시각이 불과 4분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촉박하게 미션이 떨어지다니? 평소 같으면 목적지가 어떤 곳이고 그 시대가 어떤 상황인지 조사해볼 여유가 주어지는데, 이번 경우는 숨을 고를 틈조차 주지 않았다. 결국 엘리스는 당황한 마음을 미처 다잡기도 전에, 이미 몸은 다른 공간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도착한 곳에서는 더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다.

시간 여행자가 특정 장소에 떨어질 때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서 뿔 하고 나타난 사람 때문에 놀라지 않도록 보통은 구석진 곳,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곳에 등장한다. 주차된 자동차 뒤라든가 텅 빈 복도 끝 같은 곳이 단골 장소인데, 엘리스가 도착한 곳은 뺑 뚕린 거리 한가운데였다. 다행히 주변에 사람이 보이지 않아 안심하려던 찰나, 소녀가 눈에 들어왔다. 주머니에 아무렇게나 찔러 넣은 연필과 종이 뭉치가 언뜻 보이는 그 소녀는 엘리스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2146년, 줄스는 전교생이 모여 있는 강당에서 지루한 교장 선생님의 연설을 듣고 있었다. 마지막 순서는 꼴 보기도 싫은 로살린이 학생들을 대표해서 인사말을 하는 것이라 더 짜증이 났다. 늘 주목 받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적인 말을 던지고 싶어서 안달이 난 로살린은 “이제 4년째군요.”라는 말로 인사를 시작했다. 로미오가 끔찍한 사고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한 지 벌써 4년째.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로살린의 울먹거림과 과장된 흐느낌을 바라보는 줄스는 화가 치밀었지만 어찌할 수가 없었다. 연설을 마친 로살린이 달려 나온 친구들의 부축을 받아가며 겨우 자리에 돌아가는 뛰어난 연기를 펼치는 동안, 강당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 둘, 로살린이 울음을 터뜨리게 만든 원흉을 찾기 시작했다. 교복 입은 학생들 틈에서 보란 듯이 까만 후드 티를 걸친 아이, 바로 줄스였다. 말없이 쏘아보는 눈빛에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난 로살린은 강당 밖으로 걸어 나갔다. 로미오를 만나러 가고 싶었지만, 예상 밖의 일로 빨리 학교를 빠져 나온 바람에 연담 시간까지 어딘가에서 기다려야 했다. “똑바로 처신하라”는 엄마의 당부, 자기 딸이 못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수치스러워하는 아빠가 떠올라 줄스는 다시 한 번 죽음을 떠올렸다. 로미오가 그렇게 된 후, 처음 계획대로 이 세상을 하직할 수 있었다면 적어도 아빠는 ‘양심

있는 완벽한 딸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리를 터덜터덜 걷는 동안, 갑자기 눈 앞에 '여행자'가 나타났다. 시간 여행자가 한 번씩 나타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다만, 나라에서는 이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는지 알 수가 없는데다 대부분 다급히 무언가를 처리해야 할 절박한 상황이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무자비하게 달려든다고 국민들에게 설명하며 마주칠 경우 극히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런데 이번엔 뭔가 이상했다. 절대 다가가지 마라, 병이 옮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조차 다 잊게 만드는 이상한 이유 때문에, 줄스는 그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고통도 사라진다는데, 정말 사실인지 그에게 묻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솟아났기 때문이다.

엘리스가 속한 시간여행자 그룹은 비밀리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다. 목적은 인류를 구하는 것. 철저하고 방대한 계획에 따라 이들에게 미션이 떨어지면, 역사 속 할당된 시대로 가서 약간의 '수정'을 가하는 것이 시간여행자들이 해야 할 임무였다. 2146년, 먼 미래로 가서 로마오를 깨우라는 지시를 받고 떠난 엘리스는 그곳에서 친구이자 첫사랑인 로마오가 수년째 의식을 잃고 있어 괴로워하는 줄스를 만난다. 줄스와 함께 있던 당시에 생긴 사고로 로마오가 그렇게 되면서 가족들,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한 채 살던 줄스는 로마오와의 사랑과 함께 했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사고의 진실을 소설로 쓰면서 겨우 아픔을 달래고 있었다. 우연히 마주친 엘리스와 줄스는 미래에 런던이 폐허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암호로 숨겨진 비밀을 밝혀야 그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단서를 얻는다. 하지만 암호를 풀기 위해서는 수백 년 전, 셰익스피어와 에밀리 브론테가 살던 시대로 가야만 한다. 줄스가 쓰고 있던 소설과 셰익스피어의 시대에 묻힌 열쇠, 엘리스에게 주어진 임무, 모두 어느 지점에서 연결되어 있다....

문학 역사의 상징적인 러브스토리로 꼽히는 로마오와 줄리엣에 시간 여행이라는 SF 요소를 가미하여 독창적으로 풀어낸 흥미로운 소설이다.

<저자 소개>

캐스린 바커(Kathryn Barker)는 변호사 출신 영화 프로듀서로 호주에서 TV 프로그램에 수여하는 명예로운 상인 '우수 신인감독상'을 수상했다. 이어 YA 작가로 데뷔하여 『In the Skin of a Monster』를 발표하고 2016년 호주 아우리얼리스 YA 소설상을 수상했다.